10.15686/fkl.2021..54.77 OPEN ACCESS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김윤정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조교수

목차

1 서론
2 장애와 테크놀로지의 윤리성
2.1 불완전함과의 공생
2.2 상호 의존성의 인정과 연대
3 '기괴한 사이보그'의 전복성
3.1 바이오테크 신체와 그로테스크
3.2 '불구(crip)'의 전유와 카니발리즘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김초엽의 SF 소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확장적 사고를 보여주는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포스트휴머니즘의 윤리성을 고찰하고 포스트휴먼 주체로서의 실천적 저항성, 전복성 등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김초엽의 작품들은 포스트휴먼 시대의 장애를 재개념화하고 하이테크놀로지와 장애인의 관계를 재배치함으로써 윤리적 의미들을 생산해 낸다. 김초엽의 소설 속 인물들은 장애의 미래, 미래의 장애 정체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장애를 누군가의 불행이나 불편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인간의 삶에 새겨지는 특수한 경험으로 반영한다. 더욱이 장애를 사고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고통으로 재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포스트휴머니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초엽의 소설에서 장애인은 장애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애를 수용하고 장애를 선택하기도 한다.

요컨대, 김초엽의 소설은 장애인 되기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식적 왜곡을 성찰하고 재개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김초엽의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기능적 향상이 장애의 소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란 인식적 낙인에 따른 것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없다면 완전한 기술도, 완전한 인간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문핵심어: 포스트휴먼, 장애, 김초엽, 여성 SF, 포스트휴머니즘

1 서론

포스트휴머니즘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고자 한다. 인간과 다른 종으로서, 인간보다 월등한 개체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다양한 사이보그의 등장은 인간만이 자유 이성에 기반한 유일하고 예외적 존재라는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비판한다. 그러나 반인간주의와 탈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체는 비장애인을 모델

로 상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적이다. 지금까지 인간중심주의가 백인-남성-이성애자-중산층-비장애인을 인간(Human)의 대표로 상정하고 특정 집단을 소수자로 배제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초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된 사회에서도 장애는 중심 권력에서 배제된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이상적 모델은 장애가 있는 몸을 배제하며, 장애를 동정과 배려, 교정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1] 몸의 특정한 기능이 결여(dis-ability)된 상태로서 장애(disability)는 물리적 한계가 아닌 '정상이 아닌 몸'이라는 인식적 제한을 받아왔다. 따라서 고도로 발전한 테크놀로지가 장애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한다 해도 여전히 장애는 존재할 수 있다. 장애인을 배제한 채 발전되고 있는 포스트휴먼 기술은 모두 특정한 정상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를 더 소외시키거나 혐오를 강화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의 SF 문학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율성과 독립성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장애 문제에 접근하는 일, 다시 말해서 장애를 '정상화'하는 목적에 반대한다.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의 가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 SF 문학에 재현된 장애인의 일상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초엽, 천선란, 김보영, 정소연, 전삼혜 등의 여성 작가 SF에서 장애는 보완되거나 극복되어야 할 목표로 제시되지 않는다. 장애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된 사회에서도 장애는 가려지거나 낭만화되지 않고 오히려 불완전함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여성 SF 문학에서 공통으로 제시되는 것은, 장애가 사라진 미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취약한 몸과 완전한 몸이라는 기준은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정상성의 정의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정상성(Normality)이나 이상(Abnormality)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사회의 기준과 규범이 변함에 따라 그 정의도 함께 변한다.

1 하대청, 「자율적 인공지능에서 휠체어 탄 인공지능으로」,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 『포스트휴먼 사회와 새로운 규범』, 아카넷, 2019, 136-137쪽 참조.

즉 어떤 능력이 언제나 상대적인 평가로서만 가늠될 뿐이라면, 능력에 따른 차별적 인식이 지속되는 한 어느 시대에도 장애인은 존재하게 될 것이고 특정 사회와 문화에서 배제, 소외, 멸시,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정, 극복되어야 하는 것은 취약한 몸, 손상된 몸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이다. 여성 SF 문학에서 강조하는 바, 장애의 극복은 기술의 발전에 의존하기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SF 문학에서 장애를 고찰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포스트휴먼 담론이 인공지능과 로봇, 사이보그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고, 인간의 생명 연장 실현과 신체적 기능의 증강을 상상하는 시대에 손상과 결핍을 논의할 만한 기회가 적었던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F 문학에서 장애의 은유를 읽어내고 그 의의를 고찰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학술 연구로 확장될 여지가 많다. 특히 SF 문학에서 장애 서사를 분석할 때, 김초엽의 소설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김초엽은 2017년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동시에 수상하며 등단하였다. 신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SF 장르 문학에 서정적이고 내면화된 서사를 접목함으로써 한국 SF 문학의 새로운 자극을 주며 문단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장르의 신선함과 서정적 감수성의 결합, 그리고 명확한 주제 의식은 학술연구로써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신성환[2]은 인간과 기술의 연합이 구성되는 양상,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긋나고 실패하는 면모에 주목하여 김초엽과 김보영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첨단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비주류, 이주민,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는 조건을 문제시한다는 점에서 김초엽과 김보영 작품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박인성[3]은 김초엽 작가의 소설들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 전망을 굴절시켜서 현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게 한다고 보았다. 특히 장애를 차별의 대상으로

2 신성환, 「'확장된 마음'과 인간-기술의 올바른 연합: 김초엽 소설 두 편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49호, 동남어문학회, 2020, 137-167쪽.

3 박인성, 「[비평]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KBS 뉴스』, 2021.05.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1857 (접속일: 2021.12.10.)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SF라는 장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박정수[4]는 김초엽의 소설이 기술결정론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과학 기술의 형성과 그 인간학적 효과를 성찰케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김초엽의 문학에서 장애서사를 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여해 준다.

다음으로 SF 문학에서 장애를 고찰한 연구로서 허윤[5]의 논의는 선행연구로서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허윤은 장애 및 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는 몸으로 이해하고, 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살폈다. 연구자는 김보영의 문학이 비장애중심주의에 대한 역전적 사고를 서사화함으로써 선형적 진보의 감각을 되짚고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기계 등의 이분법을 해체한다고 평가하였다. 정상성에 내재한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와는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김보영의 문학이 페미니스트 SF로서 갖는 위상과 의의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둔 연구 결과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SF 문학에서 장애 재현의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관점을 수용하는 동시에 장애와 테크놀로지의 관계에 보다 집중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수혜자로서 존재하는 장애인이이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인 돌봄이나 온정주의를 거부하고 하이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또 직접 하이테크놀로지에 접속함으로써 장애 정체성을 구성하는 포스트휴먼 주체의 존재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멸시에 대응하는 전복적 상상력을 분석함으로써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장애인이 존재하는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SF는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이야기이고, 다른 존재들을 세계의 중심에 두는 이야기이며, 세계를 재설계하는 상상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사고 실험의 장”으로, “오늘날 SF는 소외를 논하는 최

4 박정수, 「[서평] 남성중심적 휴머니즘의 세계에 대항하는 SF 상상력」, 『비마이너』, 2020. 03.0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6 (접속일: 2021.12.10.)

5 허윤,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0-35쪽.

적의 장르”[6]이다. 따라서 SF를 통해 장애인의 구체적인 삶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장애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전에 대해 인류의 기대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는 데에 유의미한 독해가 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김초엽의 소설은 상당히 많은 작품에서 장애에 대한 혁신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과학기술의 영역에 자리잡은 비장애중심주의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 구조를 전복하여 장애 중심적 과학기술을 상상한다. 김초엽의 소설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취약한 몸이거나 손상된 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장애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에 맞선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써 장애가 사라지거나 감춰진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멸시에 대응하는 전복적 상상력을 서사화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장애는 개인의 의료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고,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정의한 ‘의료적 모델’이 장애를 바라보는 기본 시선이었다.[7]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의 삶에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동시에 개선과 보완, 극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장애인에게 기술에 의존하는 삶,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요한다. 요컨대,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몸이 ‘다른 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시도들을 배제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김초엽의 소설에 재현된 장애인의 정체성과 수행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로즈메리 톰슨이 제시한 “보통이 아닌 몸(extraordinary

6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 2021, 261쪽.

7 1980년에 WHO가 발표한 국제 손상 장애 핸디캡 분류는 장애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정의로,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1)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라고 간주될 만한 이상이 있어서(손상), (2) 무엇인가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빠져(장애), (3)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핸디캡)이다. 즉 의료적인 ‘손상’이 있어서 ‘장애’가 생기고, 그에 따라 ‘차별’이 따라온다는 것이다.(류성두, 「접근성 지원 개발에 대한 오해와 편견」, 『과학잡지 에피-장애와 테크놀로지』, 통권 제16호, 이음, 2021, 95-96쪽 참조.)

body)"으로서의 장애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이는 비장애인을 지칭하는 'ordinary'의 반대 개념이다. 하지만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un-'이 아닌 'extra-'를 사용함으로써 장애를 지닌 몸을 새로운 관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를 결핍이나 결여가 아닌 '다른 몸'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8] 나아가 김초엽의 SF 소설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신체는 포스트휴먼으로의 전회가 일어나는 장소이다.[9]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포스트휴먼으로의 전회가 벌어지는 장소인 신체는 다른 인공물과 결합하거나 해체되며 그 과정에서 이질성과 계속 상호 작용하며 변화한다.[10] 이에 본고에서는 장애를 가진 몸이 '다른 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되기를 실현하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의 관계를 분석하고 포스트휴머니즘의 시각에서 김초엽 문학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11]

---

8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5-6쪽 참조.

9 질 들뢰즈는 근대성의 전제들, 특히 신체와 정신을 위계 설정하는 이분법과 신체를 하등하고 열등한 것이자 이성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논리를 비판하면서, 포스트휴먼 신체를 분석하는 중요한 틀을 제시한다. 스피노자의 실체와 양태 개념을 신체론의 기반으로 삼아 신체를 다양한 것들의 복합체이며 변형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신체는 각기 다른 신체들과 무수히 결합을 거듭하며 계속적으로 변이하면서 존재한다. 이러한 신체를 설명하기 위해,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양태 개념을 강도적 힘, 역량(puissance)을 인용한다. 내재적인 강도적 힘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적 분리를 전제하는 물질 개념을 통해 지각되거나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도적 힘은 인간적인 지각을 넘어서 작용하는 힘들의 관계를 통해 변형을 거듭하는 유연하며 역동적인 힘이다. 무엇보다도 이 힘은 관계적인 힘이다. 그래서 강도적 힘은 물리적이건, 유기적이건,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다양한 관계의 양상에서 구성적인 것으로 작용한다. 강도적인 힘이자 양태는 변용되고 변용할 수 있는 힘이며 이를 들뢰즈는 '변용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들뢰즈의 신체 개념의 핵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용 능력은 변화할 수 있는 신체의 역량을 뜻하는 것이다. (김은주, 「포스트 휴먼 신체와 공생의 거주하기-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시대와 철학』 제32권 1호(통권 9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1, 101-105쪽.)

10 김환석 외,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이성과 감성, 2020, 121쪽.

11 이 글에서는 김초엽의 소설 중에서 장애나 장애인을 중심 서사로 제시한 단편 소설 5편을 분석할 것이다. 이들 작품은 장애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과 장애인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는 작가적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서 선정한 작품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브라운 모션」, 「로라」, 「캐빈 방정식」, 「광장」이다. 이 중에서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2019년에 출판된 김초엽의 첫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으로, 정상과 비정

2 장애와 테크놀로지의 윤리성

2.1 불완전함과의 공생

과학이 장애를 결핍으로 인식하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 결핍을 제거하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과학기술은 트랜스휴머니즘의 한계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장애와 질병,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비장애중심주의를 표방하며 계몽적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와 인간상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슈퍼휴먼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장애는 또다시 삭제되고 배제된다.

그러나 포스트휴먼은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다양한 관계의 확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목적에서 기술을 선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를 배제가 아닌 포용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할 때, 과학의 발전은 그 윤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 요컨대 불완전함과의 공생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과 확신을 경계하게 하고 테크노에이블리즘(technoableism)[12]의 한계를 명시한다.

김초엽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과학자는 테크노에이블리즘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다. 여성 과학자이자 장애인으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발전된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자를 넘어 지식 생산자로, 차별과 혐오, 멸시의 세계를 재설

상,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작가 의식의 기반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작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초엽,「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김초엽,「광장」, 윤이형 외,『광장』, 워크룸 프레스, 2019.

김초엽,「로라」, 웹진 비유 제23호, 2019. 11., http://www.sfac.or.kr/literature/#/index_main.asp, (접속일: 2021.10.12.)

김초엽,「브라운 모션」,『자음과 모음』 제43호, 자음과 모음, 2019.

김초엽,「캐빈 방정식」, 조남주 외,『시티픽션』, 한겨레출판, 2020.

12 기술철학자이자 장애학자인 애슐리 슈(Ashley Shew)는 기술의 발전이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관점을 테크노에이블리즘(Technoableism)이라고 칭하며 비판한다. 테크노에이블리즘은 기술 낙관론에 기반한 비장애중심주의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를 손상된 몸을 가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고, 그 개인에게 기술적 지원이나 교정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것을 혹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테크노에이블리즘은 비장애중심주의, 장애차별주의, 능력차별주의 등으로 번역된다.(김초엽·김원영, 앞의 책, 286쪽.)

계하는 정치적 주체로 재현된다. 그들은 장애인의 손상 입은 몸을 인간이라는 종의 '비정상적 일탈 상태'로 보지 않는다. 또한 장애를 무능력으로 손쉽게 일반화하는 편견을 극복한다. 무엇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관점[13]은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14]에서는 유전자 변형 기술을 기반으로 트랜스휴먼이라는 '신인류'가 탄생한다. 신체적 결함은 태아 시기에 '스크리닝'으로 걸러지고 유전자 편집기술인 '태생 시술'로써 교정된다. 때문에 시술을 받지 않은, 혹은 받지 못한 '비개조인'은 열등함과 비정상을 의미하며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향상 기술(human enhancement technology)로서 인간의 잠재력과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종으로서의 인간을 탄생시키며, 특히 노화를 제거하고 지적, 물리적, 심리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휴머니즘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기술에 주목하며, 그러한 기술은 필연적으로 교정과 향상을 요구한다.

여성 과학자 '릴리'는 장애를 삭제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주입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유전자 디자인으로 출생한 '아름답고 유능하고 질병 없고 수명이 긴' 새로운 인류의 탄생은 신인류로 구분되어 도시 중심부인 '이타샤'에 집단을 이루며 '개조인'만의 공동체를 구성해나갔고 반면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신인류가 되지 못한 '비개조인'은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밀려가 차별과 멸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의 자연적 생식 기술에 대한 기술의 개입이 유전자에 따라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나누는 새로운 차별 형식[15]을 만

13 김휘택, 「포스트휴먼과 사이보그, 이념과 경험: 케빈 워릭의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와 김초엽·김원영의 『사이보그가 되다』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6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1. 270-295쪽.

14 김초엽,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15 곽은희, 「테크노사이언스의 젠더 감수성-포스트휴먼 SF의 여성성 재현과 젠더 역학-」, 『인문과학』 제80호, 인문학연구원, 2021, 257-292쪽.

들어낸 것이다.

> 그녀는 얼굴에 흉측한 얼룩을 가지고 태어나도, 질병이 있어도, 팔 하나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은 세계를 찾아내고 싶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세계를 나에게, 그녀 자신의 분신에게 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름답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신인류가 아니라, 서로를 밟고 그 위에 서지 않는 신인류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로만 구성된 세계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
> 지구 밖에 '마을'이 존재하는 것은 그녀의 연구가 성공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
> 내가 마을에 살았을 때, 나는 사람들이 나의 얼룩에 관해 무어라고 흉보는 것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나의 독특한 얼룩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마을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결점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 어떤 결점들은 결점으로도 여겨지지 않았다.
>
> 마을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결코 배제하지 않았다.
>
>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48-49쪽.)

선별적 출생에 대한 릴리의 각성은 치료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손상과 결핍이 제거된 삶만이 완전한 삶인가라는 의문은, 인간의 삶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윤리적 감각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릴리는 자신과 같이 얼굴에 큰 화상흉터를 갖고 태어나게 될 자신의 딸을 인위적으로 수정, 보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 '올리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차별과 편견이 없는 공동체 마을을 구성한다. "지구 밖 '마을'"(49쪽)의 설립자로서 릴리는 올리브와 같은, 비개조인 어린이들이 갈등과 고난과 전쟁이 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한 것이다.

분리된 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 동정이나 멸시를 경험하지 않았던 장애아는 시초지를 순례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냉혹한 시선을 경험하게 된다. 시초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장애인의 영역에 남을 것인지, 비장애인과의 갈등과 분리 정책의 고통에 맞설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함

으로써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이다. 비장애인으로부터 분리된 마을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을의 진실을 찾기 위해 시초지인 '이타샤'로 가출을 감행한 소녀, '데이지'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있는 세계에 남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때문임을 알게 된다. 고통과 비탄이 가득한, 비장애인 중심의 세계에서 장애인이 맞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들의 삶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단 한 명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 공동체를 설립한 릴리가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될 '올리브'를 태어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캐빈 방정식」의 '언니'(유현아)는 '국지적 시간 거품의 발생'을 연구하는 이론물리학자로서 천재적인 여성 과학자이다. "우리 우주는 수많은 주머니 우주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세계 밖에 다른 우주도 있다"(273쪽)는 '언니'의 연구 논문들은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동생인 '나'(유현지)는 언니의 국지적 시간 거품 이론에 대해 "내가 평생을 달려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언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우주가 있고 그들의 우주가 있다는 고독한 선언"(273쪽)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의 방식은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된 '언니'와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신체 기능은 대부분 정상이지만 어떤 감각적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언니'의 증상은 "시간지각 지연 증후군"으로 명명된다. 뇌에서 시간을 인지하는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감각신경들이 제대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을 통합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신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뇌의 감각 통합 기능이 망가져서 시간지각 능력을 잃게 된 것이다. '나'는 한국으로 언니를 데려와서 최신의 치료법을 과감하게 시도하며 장애 증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다.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그것을 '언니'에게 적용할 때마다 약물 부작용이 있었고, '언니'는 고된 치료과정을 힘들어하며 치료 중단을 강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이었다. '나'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내심으로써 "모든 게 느리게 천천히, 고통스럽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치료를 중심으로, 재활을 목적으로, 일상의 재건을 전제로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장애 환자인 '언니'의 선택은 도망이었다. '언니'의 돌연한 출국은 이러한 '나'의 의지와 믿음, 노력과 헌신에 대한 배반이라고 볼 수

도 있다.

> 나는 샌터바버라에서 뇌의학 연구소의 피실험자로 있어. 그 사람들은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 대신, 나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대뇌변연계의 시간 편집 기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남은 시간에는 예전에 일하던 연구실의 파트타임 연구보조 업무를 하게 됐어.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현지 너는 못 믿겠지만,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식들을 재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만 설명할게. 그 사람들의 연구는 내가 했던 연구의 연장선에 있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그 수식들의 흐름이 남아 있으니까.
>
> 지금 나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이 삶에서 내 방식대로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줘.
>
> (「캐빈 방정식」, 287-288쪽.)

이 작품에서 '언니'의 결단은 장애를 수용하고, 장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구성하며 장애와 함께 '다른 삶'을 기획하고자 한 도전이다. 여성 과학자이자 장애인인 삶에서 자기 방식대로의 의미를 찾고 구현해가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작가의 확장된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불완전한 기술과 불완전한 몸에 대한 인정과 수용은 어떤 기술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들 작품을 통해서 '다른 몸'으로서의 장애 정체성을 구성하는 포스트휴먼 주체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과학으로써 장애를 극복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며 불완전함과의 공생을 자발적으로 실천한다. 장애와 기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기계를 매개로 하여 세계라는 다중적인 관계망에 장애인을 위치시킨다. 이는 장애에 대한 관점의 전환,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정상성 개념의 해체, 중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자신의 불완전성과 불일치를 객관적인으로 관찰함에 있어서 지적인 엄격함과 헌신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이질적 관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실천 핵심은 유동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다른 정체성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

는 능력에 있다. 김초엽 작품의 여성 장애 과학자들은 장애인이 모든 면에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그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2.2 상호 의존성의 인정과 연대

이성 중심의 근대 휴머니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필수였고,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종만이 지금껏 수명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도 역시 생존 경쟁만이 자연의 법칙을 아우를 수 있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다윈의 생존 경쟁 진화론을 넘어선 상호부조론을 통해 인류의 진화를 이해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투쟁만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생존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존중과 배려, 즉 상호부조는 존엄과도 같은 의미이다. 게랄트 휘터[16]에 따르면, 자기 존엄성을 인식한 사람은 타인의 존엄도 허투루 보지 않는다.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휘터가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금 더 스스로와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신뢰 속에서 보다 호기심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김초엽의 소설이 재현하는 세계가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김초엽의 소설은 소수자 되기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며 기술의 발전과 인류 및 모든 생명체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존엄성의 가치와 필요성은 점점 격하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는다.

「브라운 모션」[17]과 「캐빈 방정식」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양가적 시선을 대비하여 보여준다. 이를테면 특정 기능의 불능 상태인 장애인은 혐오나 멸시

16 게랄트 휘터, 박여명 역, 『존엄하게 산다는 것』, 인플루엔셜, 2019.

17 「브라운 모션」에서 주요 인물인 '단희'와 '조안'은 같은 나이이지만 100년이 넘는 시대적 격차가 있는, 전혀 다른 세대의 인류이다. 원형 인류인 조안과 달리 신생 인류인 단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의미 입자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우주선 사고와 긴 동면으로 인해 수백 년 만에 깨어난 조안은 인류의 급격한 진화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번역기를 통해서만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즉 단희의 사회에서 조안은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 인물이다.

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된다. 「브라운 모션」에서 원형 인류인 '조안'은 호흡으로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숨그림자' 사람들과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다. 조안이 성대 기관을 통해 음성 언어를 발화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수백 년 이후의 인류인 '숨그림자' 사람들은 후각수용체가 진화하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를 인식할 수 있다. 정상과 비정상의 정의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안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숨그림자'라는 고립된 공동체 내부에서 이질감을 유발하고 멸시의 이유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캐빈 방정식」에서 천재 물리학자의 갑작스러운 장애 진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동정과 시혜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저명한 물리학자였던 언니의 사례가 학계에 알려지자 안타까움이 섞인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들이 있었고, 몇 가지 새로운 치료 방법이 고안되었다."(282쪽) 언니를 '위한' 진보된 의학기술의 적용은 동정과 시혜성을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과학에는 항상 장애인에 대한 온정적 시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은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베푼 온정의 수혜자로 위치한다. 그리고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시혜를 베푼다는 서사가 과학의 진보를 증명하고 상찬(賞讚)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내재된 배제와 시혜의 서사는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위계를 만든다. 장애인이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긍정하고, 장애가 있는 몸을 더 적극적으로 대상화한다. 생명공학과 사이버네틱스로 인간의 몸을 개선하고 교정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직접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이 기술과학의 확장적 적용을 통해 완성하고자 하는 포스트휴먼은 기능적으로 독립된 존재로서의 비장애인이다. 이런 점에서 「브라운 모션」과 「캐빈 방정식」에 나타난 여성 연대는 장애와 비장애의 위계를 제거하고 상호 의존성의 수용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김초엽의 소설에서 여성 장애 과학자는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긍정하고 연대를 수용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이 전제한, 배제된 인간 또는 소거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은 없다.

「브라운 모션」에서 단희와 조안의 소통은 다름을 전제로 한다. 이때 다름이란 감각과 이해의 차원에서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원형 인

류인 조안은 후각 수용체가 발달하지 않았고, 신경회로를 통한 입자 인식도 불가능하다. 반면에 단희는 발성기관이 퇴화한 신인류이다. 의미는 직관적으로 신경회로를 통해 전달된다. 이들 간의 대화는 기능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종 간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 조안과의 대화에는 늘 지연이 있었다. 단희는 기다려야 했고,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고, 때로는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해야 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압축적으로 전해야 했다. 그건 조안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가능한 한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
> (「브라운 모션」, 95쪽)

단희와 조안이 감각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방식은 속도와 태도의 문제로 재현된다. 단희와 조안은 의미합성 기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의미 합성 속도의 차이를 존중한다. 또한 단희가 조안을 위해 의미 합성기계 제작에 몰두하고 완성했다면, 조안은 냄새로써 단희와 감각을 공유하고자 시도한다. 조향(調香)을 통해서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안이 감각하는 '냄새'는 "숨그림자의 사람들이 분자 혹은 공기라고 부르는 것에서 오는 특정한 느낌"(95쪽)으로, 냄새와 의미는 같은 분자에 관한 다른 해석이다. 원형 인류는 후각 수용체가 숨그림자 사람들만큼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기체 분자들과 감정, 기억, 느낌을 연결하는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었다. 단희가 감각하는 '입자'들이 아주 정확하고 명료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과 달리 조안이 감각하는 '냄새'는 "공기 중에서 확산하고 부유하는 언어의 궤적"으로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희와 조안의 감각은 상호 전이되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입자들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의미의 영역이고, 언어로는 표현되지 못하는 감정들이지만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감각의 공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들의 소통은 언어의 이성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의 종합으로써 수행된다. 인간의 의존성을 긍정하고 더 잘 의존하도록 상호 보조, 보완하는 방식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존중한다. 요컨대 단희와 조안은 타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기능적 불능을 배제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취약함을 공유하는 포스트휴먼 주체로 재현

된다.

자매애를 기반으로 한 이들의 여성 연대는 포스트휴먼 윤리학의 단면을 보여준다. 포스트휴먼 윤리학은 자아와 타자들 사이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확장적 의식을 필요로 한다. 단희와 조안의 관계는 다수의 타자들과의 관계의 흐름 안에 주체를 위치시키는 긍정의 유대(affirmative bond)[18]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이들의 연대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생명'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조에(zoe) 중심의 평등주의가 탈-인간중심적 선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생명 자체의 역동적이고 자기조직적 구조인 조에는 생성적 생기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종과 범주의 영역을 가로질러 재연결하는 횡단적 힘이다.[19] 다른 종 주체들의 공동체와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며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장애인의 존재론에 대한 사유를 보여준다.

한편 「캐빈 방정식」에서는 장애인의 존엄에 대해 이야기한다. 존엄이란, 내가 나로서 살아가게 하는 감각, 그것은 사회가 경쟁을 향한 폭주를 멈추고 공생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열쇠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존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으로서의 비존엄을 증명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의 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애를 증명하는 일은 비존엄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기준으로 장애의 등급을 구분하며 국가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추천하는 '의사소통 보조 장치'는 "값이 비쌌고, 보조 기기 지원금은 쥐꼬리만큼 나왔다."[20] 이 과정에서 치료와 돌봄의 주체는 가족인 '나'의 몫이었다. 돌봄 관계로 재구성된 자매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 흘렀고, 서로의 고통을 공유할 수 없었다.

> 이제야 소문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 지금 언니의 의식 세계를 잠식했을 기이한 파문을 생각했다. 끝없이 느린 시간 속에서 언니는 누구보다도

18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6, 68쪽.

19 위의 책, 67, 82쪽.

20 김초엽, 「캐빈 방정식」, 『시티픽션』, 한겨레출판, 2020, 283쪽.

선명하게 이 거품의 존재를 지각할 것이다. 이제 언니는 시간 거품을 온전히 감각하는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다.

"정말이네."

어떤 허탈감이, 매듭이 풀려나가는 감각이 내 안에서 심장을 끌어 내렸다.

언니가 옳았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세계는 거품 방정식의 해로 가득 차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는 아주 천천히, 영원에 가까운 속도로 입꼬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언니가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내어 하하 웃는 것처럼 보였다.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캐빈 방정식」, 310-311쪽)

「캐빈 방정식」에서 '나'와 '언니'의 관계는 돌봄 윤리와 장애인의 존엄성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돌봄 윤리의 문제는, 자기결정권과 건강 보호라는 가치 충돌에 관한 물음으로 나타난다. 전신 장애를 겪는 '언니'의 출국은, 돌봄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안전과 보호의 대상으로 격하시키고, 자율성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낸다. '언니'는 스스로 자기 존엄에 대한 감각을 유지 보존하고자 노력한다. 인간은 설계된 회로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회로를 직접 설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회로에 힘을 실어줄지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타인과의 진정한 교류가 가능해지고, 그리하여 사회 전체의 진정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명제를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3년 만에 언니와 재회한 '나'는 언니가 주장했던 "국지적 시간 거품"을 체감하면서 윤리적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언니와 나의 관계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초월하여 각각의 상대적 시간으로써 삶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장애를 가진 몸에 대한 존중과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캐빈 방정식’은 ‘다른 몸’으로서 장애 정체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삶과 경험의 개별성을 증명하고 강조하는 인생의 공식이다. 인간의 존엄은 상호 취약성과 의존성을 존중하고 공유할 때 비로소 체감할 수 있다. 우리가 모두 다른 시간에 산다는 것, 장애인이 자신만의 시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인이 바라보는 세계가 나와 다른 풍경일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정상인의 범주 바깥으로 배제되었던 장애인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성찰을 제기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와 같이 김초엽의 소설은 여성 장애 과학자(릴리, 단희, 조안, 유현아)를 서사의 중심으로 끌어오면서 적극적으로 소수자 되기를 수행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가 진정한 윤리적 내용을 획득하려면 언제나 ‘소수자 되기’여야 한다. ‘소수자 되기’는 모든 되기의 보편적 지평이며, 정치적 실천의 윤리적 토대가 된다. 소수자 되기를 통해 자기 내부의 다수자를 극복하고 기존의 지배 질서를 바꿔 새로운 배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요컨대 여성 장애 과학자라는 소수자 되기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취약성을 가진 주체가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선취하고 배치함으로써 인간의 유한성과 상호 의존성을 긍정하고 여성 장애인이 불능의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의 존재인, 포스트휴먼 주체 되기이다.

3 ‘기괴한 사이보그’의 전복성

3.1 바이오테크 신체와 그로테스크

포스트휴먼 신체는 기술 매개적 물질이고 자연 문화 연속체 안에서 물리적 실재이자 정보 전달체가 되며, 신체는 포스트휴먼적 전회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가 된다. 포스트휴먼으로의 전회는 근대 패러다임이 전제하는 인간 정체성과 실존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적 변화만이 아니라 인본주의 세계관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인본주의가 전제하는 신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체와 물질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신체 기관의 교체

21 마정미, 『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80쪽.

및 인공 신체 기관의 증대는 의학과 생물학,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신체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재고된 인간 신체의 정체성과 인간의 존재론적 위기를 강조하는 것이다.[22]

김초엽의 「로라」[23]는 적극적인 신체 변형을 통해서 인간 정체성의 근대적 정의를 해체하고자 한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인 '로라'는 몸 정체성 통합 장애를 겪는다. 작품의 내용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고유수용감각이 있는데, 일부는 이러한 고유수용감각이 어긋나거나 불일치하여 고통을 겪게 된다. 화자이자 서술자인 '진'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로라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유수용감각 장애를 겪는 장애인들을 만나고 『잘못된 지도』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몸 정체성 통합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로라의 장애를 이해하고자 한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은 신체 변형을 통해서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로라를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과잉환상지를 겪는 로라는 세 번째 팔을 원했다. 반드시 있다고 생각되는 몸의 한 부분이 없다는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로라는 결국 팔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치료 목적의 신체 변형을 감행한다. 비장애인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몸을 소유한 진에게 로라의 세 번째 팔은 기괴한 몸, 불쾌한 골짜기가 된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진은 여전히 로라의 세 번째 팔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 그 팔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으며 지독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힘 조절을 하지 못해 부품들이 제 어깨를 파고들어 찔렀고, 공기 중으로 노출된 인공 근육이 제 뺨을 건드렸습니다. 로라의 팔에 여러 번 안겨보았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익숙해질 수 없는 감촉이었어요.
>
> (「로라」)

22 아카넷 and 디플롯, 「신체담론과 신체미술, 바이오아트의 역사와 의미-포스트휴먼 시대의 미술」, https://blog.naver.com/acanet2001/222389705130 (접속일: 2021.10.15.)

23 김초엽, 「로라」, 웹진 『비유』 제23호, 2019. 11., http://www.sfac.or.kr/literature/#/index_main.asp, (접속일: 2021.10.12.) 이 작품의 출처는 웹사이트 주소로 밝히고, 인용문에서 구체적인 쪽수는 생략하기로 한다.

몸 정체성 통합 장애를 겪는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신체 변형은 트랜스휴먼의 신체적 기능 향상 목적과 차이가 있다. 트랜스휴먼은 '몸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은 없'기 때문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는 인간의 잠재력이 무궁한 영혼을 담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신체를 증강하고자 한다. 반면에 몸 정체성 통합 장애를 겪는 장애인들은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각 장치에 이상이 있다. 이들은 뇌 내의 신체 지도와 실제 신체 사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쾌감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에 시달린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스스로 맹인이 되기를 선택하며, 어떤 이들은 스스로 팔을 절단한다." 이에 대해 일부 장애인들은 이들이 신체 장애를 낭만화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몸 정체성 통합 장애는 신체 기능의 향상을 위한 개조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로서 신체 변형을 요구한다. 주목할 것은 이들의 신체 변형은 적극적으로 사이보그 되기를 실천함으로써 포스트휴먼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 로라에게 세 번째 팔은 증강이나 향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자신의 몸에 대한 훼손이었고, 결함을 갖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진이 그렇게 긴 여정을 떠났던 이유는, 왜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결함을 갖는 결정을 내리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답은 그곳에 없었다.
>
> (「로라」)

'로라'의 세 번째 팔은 포스트휴먼 신체의 혼종성을 재현한다. 그것은 기술 매개적 물질이자 생명공학 기술로 창조된 신체로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과 기술화된 것의 경계를 흐리고 연결, 결합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신체에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그것이 이식(implant)이든, 접합(articulate)이든, 변형(modification)이든 그 결과로 테크노바디가 생성된다. 해러웨이가 기계와 유기체의 혼종으로 사이보그를 제시한 이후, 사이보그의 혁신적인 이미지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인간-기계 결합의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포스트

휴먼, 혹은 테크노휴먼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다.[24] 인간의 몸은 더 이상 자연적인 것,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학, 기계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인지공학 기술 등이 상호 연계된 융합 기술에 의해 번역, 조직, 수정, 삭제, 삽입, 선택, 재구성, 창조"되는 것이다.

기술과학의 발전은 인간 신체 기능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25] 인간의 몸이 더이상 자연으로 소여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인간의 몸은 얼마든지 새롭게 디자인되어 신체와 기술 간의 상호 침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테크노휴먼이 되는 과정에서 신체와 기술 간의 상호침투(interpenetration)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와 같이 포스트휴먼 주체는 주어진 몸에 대해 "대상 자체를 설계하고 창조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작동하며, "확산, 변형의 과정과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26] 몸의 개조, 이식, 그리고 확장을 통한 재디자인은 결국 인간을 재개념화하는 것이다.[27]

이 작품에서 장애인은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문제 삼는 사이보그다. 그로테스크한 신체 변형을 통해 '로라'는 장애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횡단하는 존재로서의 사이보그 개념을 재현한다. '로라'의 몸은 정상성에 관한 통념을 깨뜨린다. 그녀의 세 번째 팔은 비

24 이수안, 『테크노 문화풍경과 호모 센수스』, 북코리아, 2018, 162쪽.

25 자신의 피부를 바늘로 꿰어 몸을 허공에 매달거나 연골을 배양해 만든 '제3의 귀'를 왼팔에 이식한, 오스트리아 행위예술가 스텔락(Stelarc)은 신체를 비우고 합성 피부를 만들어 신체를 테크놀로지와 생물학의 공생적 결합에 견딜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가장 극단적인 논리로 신체 변형을 실천하는 그는 '신체'-'기계'-'인터페이스의 미디어 총체 예술작품'의 확장으로 신체를 재형성하는, 이른바 '인간 신체의 사이보그화'를 보여주었다. 2000년 '서울국제 행위 예술제(SIPAF)'에서 선보인 그의 대표작품 「제 3의 손 (Third Hand)」은 인간과 기계의 완벽한 소통을 보여주었다. '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장면에서, 오른손은 'O', 왼손은 'T', 그리고 오른손에 장착된 로봇 팔은 동시에 'N'을 썼다. 스텔락의 사이보그 기계 신체는 인간의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인간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실현시킨 것이다.(아카넷 and 디플롯, 「신체담론과 신체미술, 바이오아트의 역사와 의미_포스트휴먼 시대의 미술」, https://blog.naver.com/acanet2001/222389705130 (접속일: 2021.10.15.))

26 조선령, 『이미지장치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36쪽.

27 이수안, 앞의 책, 137쪽.

정상의 형태로써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그로테스크한 몸의 변형은 '다른 몸'을 적극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오히려 비정상성을 호기심의 소재로 소비하는 비장애인에게 정상성의 위상을 반문한다. 장애(손상, 결함)의 극복이라는 것이 증강이나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과 변형을 통해 스스로 결함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적으로 부여된 몸이 아닌 기술 매개로써 구성되는 몸이라는 점에서 장애를 가진 몸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과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2 '불구(crip)'의 전유와 카니발리즘

과학은 장애를 가진 몸의 구체적인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의 삶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되고 있는 포스트휴먼 사회는 종종 장애를 지워버리고 장애가 있는 몸을 초월적인 몸으로 멋있게 교정한다. 휴머니즘 사회에서 배제되어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었던 장애인은 포스트휴머니즘 사회에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인간으로 이상화되고 패션화 되기도 한다.

김초엽의 단편소설 「광장」은 비장애중심주의에 실천적 저항을 보여주는 장애인 서사이다. 이 작품에서 장애 발생의 요인은 후천적인 것으로, 이상기온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플루오펜마이드'라는 약품은 한 세대에 걸쳐 시지각 이상증을 유발했다. 대기를 통해 널리 확산되면서 많은 수의 아이들이 시지각 이상증세를 보였고, 이들은 이 증후군을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라 '모그'라고 불리었다.

> 모그들은 시각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 개별적인 자극을 하나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조합하는 일에 실패한다. 인간이 보는 세계는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인지 회로를 통해 재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재구성에 실패한 모그들의 세계는 파편화된다. 흩어진 퍼즐 조각, 여러 빛깔의 안개, 색면의 추상화. 어떤 이들은 낭만적 대상화의 일종으로, 그들을 추상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묘사가 정말로 모그들의 세계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광장」, 127쪽)

이 작품에서 장애인으로 나타나는 모그들은 인간의 신체가 인간-기계의 혼종(hybrid)으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존재들이다. 모그들은 두개골 안쪽에 플루이드라는 일종의 신경계 임플란트를 직접 삽입하여 시지각 이상이라는 장애를 개선한다. 작품의 중심인물인 '마리'는 모그이다. 마리는 '모그'라는 장애에 대해 일종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비장애인과는 '다른 몸'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플루이드[28]의 다음 단계, 새로운 플루이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플루이드의 원리가 인간의 뇌를 항상 접속 상태에 두는 것이라면 그것을 사고의 도구로 확장할 수 있었다. 마리는 특정 종류의 감각을 중간 매개체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데 성공한다. 자기수용감각을 다른 사람에게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감각의 연결망으로서 몸의 위치에 대한 감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플루이드는 단순한 가상현실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감각, 새로운 소통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결합, 또는 인간의 신체에 가하는 기술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바이오테크 신체가 플루이드라는 매우 구체적인 형상으로 구현된 것이다.

마리는 대규모 페스티벌의 특별 무대에서 모그들의 공연을 기획했다. 자신들의 소통 방식을 더 진보한 것으로 여기는 마리가 무대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다. 마리가 기획한 카니발리즘은 '보통'의 인간이 지닌 감각의 제한을 풀어버리는 것이었다. 불필요한 감각 정보를 버리고 추상의 세계를 경험

28 "1세대 플루이드는 모그들을 위한 감각 보조 장치로 처음 도입되었다. 모그들은 상시적 접속 상태에서, 외부의 시각 정보를 다른 감각 정보로 변환하여 전달받을 수 있었다."(131쪽) 플루이드는 이전에 이미 개발되었던 루프 칩을 개조한 것이다. 루프 칩은 세계의 모든 연결망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간편하게 피부 안쪽에 삽입해서 감각 신경을 자극하는 칩으로, 모든 사람들을 상시적인 온라인 상태에 두는 기술이 최초로 상용화된 사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도한 감각 자극에 적응하지 못했다. 감각계로 직접 전송되는 과다한 신호가 뇌에서 과부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자아와 외부 세계를 분리할 수 없게 되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루프 칩의 보편화는 실패했다.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각적 장애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다.

>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무대 앞에 선 수천 명의 사람에게 전환 물질이 담긴 안개가 흩뿌려졌다. 무대 특수효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안개 속에서 의심 없이 숨을 들이쉬었고, 다음 순간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도 모르면서 어디론가 도망쳤다. 많은 사람들이 시지각 이상증을 얻었다. 혼란 속에서 마리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
> 같은 시각에 모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어떤 모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서 마리와 같은 행동을 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저 거리에 우뚝 서 있기만 했다. (…)
>
> 수많은 사람이 시지각 이상증으로 괴로워했다. 증상은 일시적이었지만, 트라우마를 남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 이후로 모그들을 이전보다 더 증오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로소 모그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
>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계속 모그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 논쟁적인 선택은 모그에 관한 다른 논쟁들을 이끌어냈다.
>
> (「광장」, 149쪽)

마리는 기술과 장애의 관계를 장애 중심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쓴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들을 비하해왔던 '불구(crip)'를 전유함으로써 비장애 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권력을 탈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의 페스티벌은 일시적으로나마 '불구'를 보편화함으로써 비장애 중심주의와 정상성 규범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카니발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마리는 시지각 이상증을 크리핑(cropping)함으로써 장애를 신체적 결함이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하이테크놀로지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다른 몸'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마리의 카니발리즘에서와 같이, 크립 테크노사이언스[29]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장애 경험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상의 기술을 재구성하고, 세계를 개편하는지에 주목한다. 장애인은 단순히 세계의 수용자이거나 세계에 의해 형성되는 이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계를 재창조하는 사람들이다. 기술의 복잡한 측면들을 복잡한 그대로 바라보고, 인간과 기술이 맺는 모순적인 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며, 그 모순을 끊임없이 사유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한 사람의 노력과 극복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집단적인 접근성, 상호 의존을 긍정하는 미래를 설계하자고 제안한다.[30] 이렇게 볼 때 마리의 공연은 장애 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도발적이고 전복적인 시도이다.

물론 마리의 공연은 테러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모그들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고, 일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일시적인 시지각 이상증에 괴로워하면서도 중간매개 없이 다양한 자극들을 감각할 수 있다는 기능적 향상은 자발적 모그들을 등장시켰다. 개별적으로 조직된 플루이드 그룹이 수백 개가 생겨났다.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또 다른 연결망이 개설되었다. 이제 중심이 되는 곳은 없었다. 대신 모그들은 파편화된 세계에 자유롭게 속하게 되었다. 마리의 카니발리즘, 그녀의 전복적 사유가 마침내 장애의 비정상성을 해체한 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제한된 감각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비장애인의 삶이란 결국 제한 감각을 통해 세계의 표면을 더듬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감각의 제한성은 바로 인식적 한계이자 편견과 독단으로 이어지게 한다. 모그들이 수행하는 카니발리즘은 바로 제한된 감각에서 비롯된 인식적 한계와 편견에 대한 저항

29 크립 테크노사이언스는 기존의 지식 생산과 소비라는 정형화된 구도를 뒤집는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 공동체가 직접 만들고 건설하는 기술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햄라이와 프리츠가 제안하는 크립 테크노사이언스의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을 지식인이자 제작자로서 중심에 둔다. (2) 통합이 아닌 정치적 마찰과 논쟁의 장소로서 '접근성'을 드러낸다. (통합과 동화의 관점에서는 접근성이 마치 상품처럼 제공되지만, 크립 테크노사이언스의 관점에서는 기술을 이용해 접근성을 쟁취해낸다는 의미로 쓰였다.) (3) 정치적 기술로서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4) 장애 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김초엽·김원영, 앞의 책, 187쪽.)

30 위의 책, 187-188

이다. 일시적이나마 극단적인 장애중심주의로의 전환을 꾀함으로써 모그들은 비장애인이 지닌 한계와 결함을 직시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와 비장애가 어떤 능력의 소유로써 구분되는 것이라면, 모그들의 공연은 그 능력의 개념을 전유함으로써, 다시 말해 매개 없이 전달되는 감각,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편협한 사고를 해체한 카니발리즘이라고 하겠다.

4 결론

이 글은 김초엽의 SF 소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확장적 사고를 보여주는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와 테크놀로지의 관계성과 그 윤리성을 고찰하고 포스트휴먼 주체로서의 실천적 저항성, 전복성 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적 가치를 내세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작품을 분석하였다. 교정과 치료를 통해 장애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적용은 장애인의 구체적인 삶과 장애인의 의지적 삶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을 존중하는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작가는 강조한다.

김초엽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브라운 모션」, 「캐빈 방정식」에서는 여성, 장애, 과학자라는 정체성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구분의 모호성과 기술과학 발전 방향과 목적에 내재한 윤리적 가치를 검토할 수 있었다. 이들 작품에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되는 장애 비장애 구분은 모호하며, 과학기술은 개인의 안위와 기능적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상호 의존성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3장에서는 비장애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휴먼'이라는 정상성을 해체하고 비장애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시각의 모순을 보여주는 장애인들의 실천적 수행을 살펴보았다. 「로라」와 「광장」은 보다 적극적인 실천적 저항으로

서 장애에 대한 차별과 멸시에 대항하였다. 「로라」에서는 자연적 소여로서의 신체를 해체하고, 기술적으로 매개된 신체로 변형함으로써 포스트휴먼 주체의 혼종성을 재현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몸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정상성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로라'를 통해 장애인의 몸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광장」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 대한 대항적 행위로서 전복적인 카니발리즘을 보여준다. 멸시와 혐오의 용어인 '불구'를 적극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불구'로 낙인된, 신체적 기능이 오히려 인간의 제한적 감각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으로서 그 효율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역전적 사고실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서 살펴본 김초엽의 작품들은 포스트휴먼 시대의 장애를 재개념화하고 하이테크놀로지와 장애인의 관계를 재배치함으로써 윤리적 의미들을 생산해 낸다. 김초엽의 소설 속 인물들은 장애의 미래, 미래의 장애 정체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장애를 누군가의 불행이나 불편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인간의 삶에 새겨지는 특수한 경험으로 반영한다. 더욱이 장애를 사고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고통으로 재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포스트휴머니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초엽의 소설에서 장애인은 장애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애를 수용하고 장애를 선택하기도 한다. 요컨대, 김초엽의 소설은 장애인 되기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식적 왜곡을 성찰하고 재개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김초엽의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기능적 향상이 장애의 소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란 인식적 낙인에 따른 것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없다면 완전한 기술도, 완전한 인간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초엽,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2019, 허블, 2019, 9-55쪽.

_____,「광장」, 윤이형 외,『광장』, 워크룸 프레스, 2019, 119-153쪽.
_____,「로라」, 웹진 비유 23호, 2019. 11.,
http://www.sfac.or.kr/literature/#/index_main.asp, (접속일: 2021.10.12.)
_____,「브라운 모션」,『자음과 모음』 제43호, 자음과 모음, 2019, 83-105쪽.
_____,「캐빈 방정식」, 조남주 외,『시티픽션』, 한겨레출판, 2020, 263-311쪽.

단행본

김초엽·김원영,『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 2021, 187, 261, 286쪽.
김환석 외,『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이성과 감성, 2021, 121쪽.
마정미,『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80쪽.
이수안,『테크노 문화풍경과 호모 센수스』, 북코리아, 2018, 137, 162쪽.
이혜영 외 3인,『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한국학술정보, 2018, 145-175쪽.
조선령,『이미지장치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36쪽.
게랄트 휘터, 박여명 역,『존엄하게 산다는 것』, 인플루엔셜, 2019, 1-222쪽.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역,『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5-6쪽.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포스트휴먼』, 아카넷, 2016, 67-68, 82쪽.
조애나 러스, 나현영 역,『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포도밭, 2020, 29-103쪽.

논문

강은교·김은주,「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6-62쪽.
곽은희,「테크노사이언스의 젠더 감수성-포스트휴먼 SF의 여성성 재현과 젠더 역학-」,『인문과학』 제80호, 인문학연구원, 2021, 257-292쪽.
김은주,「포스트 휴먼 신체와 공생의 거주하기-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시대와 철학』 제32권1호(통권 9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1, 97-130쪽.

김휘택, 「포스트휴먼과 사이보그, 이념과 경험: 케빈 워릭의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와 김초엽·김원영의 『사이보그가 되다』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6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4. 269-295쪽.

류성두, 「접근성 지원 개발에 대한 오해와 편견」, 『과학잡지 에피-장애와 테크놀로지』, 통권 16호, 이음, 2021, 86-101쪽.

신성환, 「'확장된 마음'과 인간-기술의 올바른 연합: 김초엽 소설 두 편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49호, 동남어문학회, 2020, 137-167쪽.

이문우, 「서로의 취약성 속에서 무한히 연결되기를: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고」, 『여성문학연구』 제5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500-508쪽.

이지언, 「과학기술에서 젠더와 몸 정치의 문제,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17호, 한국여성철학회, 2012, 97-121쪽

이지용, 「한국 SF의 장르적 특징과 의의-근대화에 대한 프로파간다부터 포스트휴먼 담론까지」, 『대중서사연구』 제25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33-69쪽.

하대청, 「자율적 인공지능에서 휠체어 탄 인공지능으로」,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 『포스트휴먼 사회와 새로운 규범』, 아카넷, 2019, 116-146쪽.

허윤,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0-35쪽.

기사 및 인터넷 자료

박인성, 「[비평]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KBS 뉴스〉, 2021. 05.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1857 (접속일: 2021.12.10.)

박정수, 「[서평] 남성중심적 휴머니즘의 세계에 대항하는 SF 상상력」, 〈비마이너〉, 2020.03.0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6 (접속일:

2021.12.10.)
임지영,「언젠가, 어딘가 더 나은 '현실'을 향해」,『시사in』, 2020.11.24.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책 만드는 파주출판도시 소식지(파.출.소)」 제10호, https://buk.io/@pa4267, (접속일: 2020.12.20.)
아카넷 and 디플롯, 〈신체담론과 신체미술, 바이오아트의 역사와 의미-포스트휴먼 시대의 미술〉, https://blog.naver.com/acanet2001/222389705130 (접속일: 2021.10.15.)

Abstract

Posthumanism and Disability in Kim Cho-yeop's Novels

Kim Younjung

In an attempt to examine the ethics of posthumanism, this article explores the science fiction novels of Cho-yeop Kim, which demonstrate an expansive thinking on disability, while also considering the practical resistance and subversiveness of the posthuman subject.

Chapter 2 analyzes works that raise questions abou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at advance transhumanist values. The 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elimination of disability through correction and treatment excludes the possibility of the disabled person's specific and intentional life. Cho-yeop Kim's science fiction writing emphasizes that raising the possibility of being able to choose one's own life and preventing one from being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prove one's own dignity must become the direction and purpos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at respects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hapter 3 examines the real-world praxi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includes deconstructing the normative concept of "human" as a form of resistance to non-disability-centrism and revealing the contradictions that derive from the perspective that takes the abilities of non-disabled people as a standard norm. Cho-yeop Kim's novels represent the hybridity of the post-human subject by deconstructing the taken-for-grantedness of the body and transforming it into a technologically mediated body. In addition, by actively appropriating the term "discomfort," which is a term of contempt and disgust, the physical function, which was branded as "disabled," expands the realm of limited human senses and can be recognized for its efficiency and functionality as a new communication method.

As mentioned above, Cho-yeop Kim's works produce ethical meanings by reconceptualizing disability in the post-human era and reartic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technolog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ho-yeop Kim's novels, disability is not represented as something that will disappear throug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oreover, the meaning of disability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t reveals that if there has been no transformation in thinking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disability as a product of cognitive stigma, then there is clearly no such thing as perfect technology or the perfect human.

Key words: Post-human, disability, Kim Cho-Yeop, women's science fiction, post-humanism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